

광주시, 한부모가족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한다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 중복 지원
청년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월 최대 10만원 지급

광주시가 가정의 달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은 자녀양육비 지원대 상에서 제외됐으나 5월부터는 이들 한부모가족도 자녀 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

액도 확대해 그동안 조손가정과 만 25세 이상 미혼 부모가족에게만 월 5만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청년 한부모(만 25~34세) 가족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 5만~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4만6556세대로, 이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는 자녀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 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검정고시학 습비와 자립지원금 수당, 고교생 교 육비와 자녀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 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보장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없이 변경되며, 미신청 가족 은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포(online. 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

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2일 “부모 가족을 보편적 가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이들의 당당한 자립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순천시 조곡동 ‘향기나는 뽕송뽕송 빨래방’

취약가구 방문해 이불빨래와 봄맞이 대청소 실시

순천시 조곡동 마중물보장협의체(대표 조성중)는 최근 거동이 불편한 단독가구 및 세탁기가 없는 취약가구 20세대를 방문하여 겨우내 덮었던 이불빨래와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중 세탁기가 없고, 또 있어도 사용이 어려운 취약가구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실시하게 된 사업이다. 마중물협의체 위원들은 세탁 뿐 아니라 스스로 청소 등 정리를 하지 못하는 세대에는 직접 찾아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청소와 정리·정돈 요령, 위생교육까지 겸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 특화사업으로 매월 진행되며 세탁물 수가

에서 세탁, 건조, 전달까지 하루 만에 이뤄져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런 이유로 2년째 선정이 되어 올해도 지속하는 사업이다. 이에 여인숙 달방거주자 이모씨는 “세탁기가 없어 옷을 더 입지 못할 때까지 입다 버리곤 했는데 이렇게 세탁을 해주니 몸 뿐 아니라 마음까지 뽕송뽕송해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성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분들은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졌는데 이렇게라도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뻐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노인요양시설 무료 이동결핵검진 실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9개소 304명 대상

고흥군은 결핵퇴치를 위해 찾아가는 노인요양시설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결핵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쉽고 빠르게 감염될 수 있어,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입소자 304명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 지부와 연계하여 이동검진차량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기를 갖추고 검진하며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이때 의심소견자의 경우 당일 객담 채취까지 실시하는 등 신속한 진단으로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결핵을 치료할 계획이다. 또한, 엑스레이 판독 결과 결핵의심소견 또는 비 활동성 결핵인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추구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노인 및 시설폐사자 등 942명을 대상으로



노인결핵검진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결핵은 호흡기 전염병으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준수와 기침예절이 필요하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주거빈곤 아동 위한 ‘재래식 화장실 Zero in 함평’

관내 저소득 아동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

함평군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남지역본부장 박수봉)과 함께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 Zero in 함평’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4월 28일 밝혔다. ‘재래식 화장실 Zero in 함평’ 사업은 지난해 양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실시한 ‘사랑의 집짓기 in 함평’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아동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

난 2월부터 함평군 관내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800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14가구를 발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 현장실사를 거쳐 화장실 개보수가 시급한 10가구를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내달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 확보된 사업비 5,500만 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비 4,000만 원, 해피빈 모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한 사업

비는 지역 후원가의 개인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박남열 월야면 신성영농조합법인 대표가 100만 원, 정계천 월야면 세화농장 대표 300만 원, 이현희 월야면 바울농장 대표가 200만 원을 각각 후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연 주거환경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동의 미래가 밝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